

대학원에서 미국 소설 강의하기: 강의 사례와 구체적 쟁점

최 정 선*

— 차 례 —

- I. 문제 제기
- II 강의의 방향성과 텍스트의 선택
- III. 강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문제점

I. 문제 제기

최근 많은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영문학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별로 어떻게 영문학을 가르칠지 고민하고 기껏해야 가까운 교수들끼리 정보를 나누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칠지는 대부분 교수자들에게 막연하였다. 따라서 각 교수자 개개인이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 자기만의 강의 방법을 만드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최근 영미문학교육학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한국영어영문학회 차원에서 영문학 교수 방법론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교수들이 교수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원 석, 박사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논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대학원생들의 강의는 소규모인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 교수 개인의 취향이나 관심에 따라 가르치는 방식으로 흐르게 된 때문이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앞으로

* 한경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미래의 영문학자로서 우리나라 영문학과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강의 방법론에서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대학원에서 미국소설 강의를 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지 또는 영문학 전공과목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¹⁾. 그리고 학부 영문학강의에 대한 교수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하지만 대학원에서 미국 소설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론화되어 논의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그러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II. 강의의 방향성과 텍스트의 선택

먼저 대학원에서 미국 소설을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넓게 보면 대학원에서 영문학 공부를 왜 하느냐 하는 논의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미국 소설을 가르치는 근본 목적과 방향에 대한 대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많은 대학의 대학원 편람에 나와 있듯이 미래의 영문학자를 양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현실의 대학원이 그러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가? 물론 서울의 우수한 대학에서는 미래의 영문학자가 될 만한 많은 인재가 있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도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진다. 그곳에 등록한 학생들은 영문학자가 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학력을 좀 더 높이거나 교사 승진을 위한 목적을 가진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대학원의 수가 적지 않음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영문학자의 양성보다도 좀 더 일반적인 목적, 영문

1) 최근 2007년 영어영문학회 정기 학술대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영문학을 영어로 강의하기”이었으며, 2008년 영어영문학회 국제 학술대회에서의 중요 이슈가 “동아시아에서의 영어교육”(English Education in East Asia)이었다.

학에 대한 이해를 통한 영미 문학과 문화의 이해, 영어 실력의 배양, 영문학을 근간으로 한 훌륭한 영어 교사의 양성 등도 대학원 영문학과의 목표로 설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렇게 앓고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교과목이나 교수법을 계속 진행할 경우 현실과의 괴리가 계속 생겨 나중에는 대학원 영문학과 의 존립 근거마저 위태로울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러한 점에서 영문학 관련 학술대회에서 대학원 영문학과의 목표와 교수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최근 영어 교육의 주도권은 완전히 TESOL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어학 관련 교수나 연구자들이다. 그러나 영문학 관련자가 잘 알듯이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영문학 텍스트이다. 그러나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영문학 관련자는 없고 오직 영어교육 전공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왜 그러한가? 무엇보다도 영문학 관련 교수들이 영문학과 영어 교육과의 연관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았고 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영문학과 교수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제 대학원 영문학과의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교수법에 대하여 영문학과 교수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 영문학과 대학원의 최근의 변화를 볼 때 필자는 미국 소설 강의의 목표도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넣었다. 물론 첫째로 미래의 영문학자를 배양하는 목표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것 이외에도 필자는 미국 소설을 통한 미국 문학과 문화의 이해, 영어 실력의 배양, 그리고 미국 소설의 텍스트를 통한 훌륭한 영어 교사의 양성도 미국 소설 강의의 목표로 넣었다. 물론 이러한 미국 소설 강의의 목표는 대학의 수준에 따라 수강 학생의 분위기에 따라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는 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령 서울의 우수한 대학원은 미래의 영문학자의 양성에 좀 더 초점이 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교육대학원이나 지방대학의 대학원은 후자 쪽에 목표를 좀 더 둘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대학원에서 미국소설 강의는 <영미문학특강>이라든지, <영미산문연구> 등의 제목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학부에서는 미국 소설을 <영미문학개론>이라는 제목이나 <영미문학과 영화>또는 <고급 영문강독>이라는 교과목에서 일부로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대학원에 오면 대

부분의 대학에서는 미국 소설이 별개 교과목으로 분리되어 <미국소설>로 가르치고 있다. 상당히 큰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더 나아가 <19세기 미국소설>, <20세기 미국 소설> 또는 <19세기 미국소설 주제연구> <20세기 미국 소설 주제연구>로 세분화하여 가르치기도 한다.

교과목 이름이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에게 어떤 미국 소설을 가르쳐서 그들이 미래의 학자가 되는 소양을 키우고 더 나아가 영어 실력 배양과 영미 문학과 문화의 이해를 갖게 하는 가일 것이다.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 및 다른 학교 대학원 몇 곳에서 미국 소설을 강의하면서 느낀 것은 대학원 별로 큰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몇몇 대학의 대학원 학생들은 어떤 길이의, 어떤 수준 높은 미국 소설도 소화해 내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대학의 대학원생들은 너무 길거나 문장이 어려운 미국 소설은 소화해 내지 못했다.

또한 앞서 언급했다시피 대학원별로 학생들이 미국 소설을 공부하는 목적도 천차만별이었다. 가령 교육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지방의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서울의 명문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목표는 분명히 달랐다. 교육대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전 중심으로 중요 작품을 한번 훑어보는 것에 목적이 있고, 서울의 명문대학원 학생들은 학문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원하는 등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런 점에서 대학원 수준별로 영문학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영문학과 대학원 강의가 상아탑 저 위에서 현실적인 움직임과 아무 상관없는 고답준론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대학원 별로 학생들의 진학 목적과 학력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영문학 세부 전공별로 대학원 수준에 맞추어 교육 방법론을 논의하고 개발해야 한다.

대학원에서 다루는 텍스트에 대해 논의를 해 보자.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영문학 전공 대학원생들을 만족시킬만한 교재는 소수 작가나 특별한 것보다는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전이었다. 사실 대학원에서 중요한 정전을 통해서 미국 소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 문화나 사회를 배우고

학문적으로 깊이 논의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석, 박사과정 학생들은 영미문학을 현재 가르치고 있거나 앞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소수 민족문학 보다는 중요한 정전들을 논의하면 본인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므로 강의 시간에 훨씬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물론 <20세기 미국소설 주제 연구>같은 교과목이 있는 학교가 있으면 “아시아계 미국소설가”의 작품을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목 제목이 단순히 <미국소설>이거나 교육대학원, 그리고 지방대학의 대학원에서는 특히 정전을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불만도 적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또한 교육대학원이나 지방대학 대학원의 경우 긴 장편소설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그곳에 오는 학생들은 영문학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보다 교사 승진이나 학원 운영을 위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 두 편의 장편소설보다 미국 문학 전반의 중요한 이슈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단편이라도 많이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읽으며 발표준비도 잘 하게 된다. 사실 대학원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읽어오지 않으면 그야말로 교수 혼자만 계속 설명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수업이 진행되는 수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학생들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며 강의만족도도 현저히 낮다. 그러므로 대학원생들 수준을 보아 단편이라도 잘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필자의 경우 교육대학원에서는 단편도 많이 사용하였는데 장편 한권을 할 때 보다 훨씬 더 호응이 좋았다. 만약 미국 소설이나 문학의 중요 이슈를 다루고 싶은 데 마땅한 단편이 없을 때에는 장편소설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떼어 강의를 해도 좋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가령 대학원생 수준을 보아 랠프 엘리슨(Ralph Ellison)의 『보이지 않은 사람』(*Invisible Man*)을 전부 다루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1장, 10장만을 떼어 강의해도 좋고,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의 경우, 16장과 31장, 43장만을 떼어 다루어도 학생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다. 사실 교육대학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학에 관심이 많다. 이런 대학원생들이 영문학을 듣는 이유는 그 과목 이름이 <미국소설>이 되었든 <영미문학의 이

해>가 되었든 대개 그 과목이 필수 과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문학에 큰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장편소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단편이나 장편 중 발췌 부분을 가르쳐서 미국문학과 문화의 전반에 걸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차라리 훨씬 더 학습효과가 높고 강의 호응이 좋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필자가 강의 텍스트로 삼은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대학원이나 지방의 대학원을 위한 단편 및 발췌문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의 내용은 중요 문학적 흐름과 이슈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 William Bradford: *Of Plymouth Plantation* 9장, 10장 (청교도주의, 선민의식, 인디언재현)
 Benjamin Franklin, *The Autobiography* 1장 (계몽주의, 미국의 꿈, 타자의 문제)
 Washington Irving: “Rip Van Winkle” (미국 지역의 문제, 여성과 남성의 관계)
 James F. Cooper: *The Last of the Mohicans* 1장, 17장, 33장 (인디언 재현의 문제)
 Nathaniel Hawthorne: *The Scarlet Letter* 1장, 3장, 10장 (청교도주의, 미국 민주주의)
 “The Minister’s Black Veil” (어두운 낭만주의, 상징과 해석의 문제)
 Herman Melville: *Moby Dick* 1장, 104장 (모비딕의 상징성 문제)
 “Benito Cereno” (백인과 흑인의 재현과 인종 문제)
 Edgar Allen Poe: “Ligeia” (미국역사에서 The return of the repressed의 문제)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자아와 타아의 문제)
 Mark Twain: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1장, 16장 31장(인종문제, 지배담론의 문제)
 “The Notorious Jumping Frog of Calaveras County” (미국의 유머, 서부문제)
 Stephen Crane: *A Girl of the Streets* 1장, 5장 마지막 장 (자연주의, 사실주의와의 차이)
 Ernest Hemingway: *The Sun Also Rises* 1장, 마지막 장 (Lost Generation, 희망의 문제)
 “The Short Happy Life of Francis Macomber” (남성과 여성의 재현)
 Ralph Ellison: *The Invisible Man* 1장, 10장 (백인 지배체제와 흑인의 저항문제)
 Bernard Malamud: “The Magic Barrel”(유대성, 절망과 희망의 문제)
 John Barth: “Lost in the Funhouse”(포스트모더니즘)
 “The Literature of Exhaustion”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이상의 텍스트들은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교육대학원 수준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며, 동시에 미국 문학의 흐름과 문화의 중요한 이슈에 관해 논의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장편소설에서 이렇게 따로 떼어 가르칠 경우에는 학생들 발표에 줄거리 전체를 짧게 요약하게 한 후 다루는 장 앞뒤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여 발표하게 하면 토론이 부드럽게 진행된다. 또한 짧은 부분을 가르치지만 중요 상징이나 쟁점을 명확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가령 『보이지 않은 사람』의 경우 “사자의 입”(lion's mouth),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경우 “뗏목”(raft)의 상징성이나 혁의 갈등의 의미를 지배담론과의 갈등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정리해주고 같이 토론해야 전체 작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장편소설 또한 미국 문학과 소설의 중요 쟁점을 논의할 수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선택하였다. 교재를 고르는 데 있어 최근에 생긴 가장 큰 문제는 교재를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교보문고와 같은 큰 서점에서 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커다란 서점에는 아주 유명한 장편소설만 있고 교재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미리 한두 달 전에 미리 교재를 주문해야 큰 문제없이 강의에 임할 수 있다. 다음 텍스트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대학원에서 다룰 수 있는 교재들이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음 교재 중에서 일부만을 떼어 강의해도 큰 문제가 없다.

Charles Brockden Brown: *Wieland*

James Fenimore Cooper: *The Last of the Mohicans*
The Passfinder

Hawthorne: *The Scarlet Letter*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Herman Melville: *Moby Dick*

Edgar Allen Poe: *The Narrative of Arthur Gordon Pym of Nantucket*

Mark Twain: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

The Mysterious Stranger

Frederick Douglass: *Narrative of the Life of Frederick Douglass*

Henry James: *The Portrait of a Lady*

William Dean Howells: *The Rise of Silas Lapham*

A Hazard of New Fortunes

Stephen Crane: *Maggie: A Girl of the Streets*
The Red Badge of Courage

Theodore Dreiser: *Sister Carrie*
An American Tragedy

F.S. Fitzgerald: *The Great Gatsby*
This Side of Paradise

Ernest Hemingway: *For Whom the Bell Tolls*
The Old Man and the Sea

William Faulkner: *The Bear*
The Sound and the Fury

John Steinbeck: *The Grapes of Wrath*

Upton Sinclair: *The Jungle*

Ralph Ellison: *The Invisible Man*

Saul Bellow: *The Dangling Man*

John Updike: *Rabbit, Run*

Salinger: *The Catcher in the Rye*

John Barth: *Chimera*

Thomas Pynchon *The Crying of Lot 49*

Toni Morrison: *Beloved*
The Song of Solomon

필자는 이상의 텍스트 중에서 대학원생들의 수준에 따라 한 학기에 두세 권을 선택해 읽었다. 석, 박사 학생들이 뒤섞인 강의냐, 아니면 석사들만 있는 강의냐, 그리고 대학원생 수준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일주일에 읽는 양을 잘 조절해 주어야 한다. 읽고 오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토론도 되지 않고, 많은 경우 강의 내용도 이해되지 못한다. 또한 수준에 따라 강의 진행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 가령 교육대학원의 경우 다음 주 강의에 대해 일정 정도 진도를 정해 주고 그 부분에서 중요 이슈가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서 어느 정도 알려 주어야 학생들이 준비해오고 강의가 원활히 진행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단순히 읽어만 오거나 아예 읽지 않은 경우가 많아 토론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

또 하나 대학원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영어로 된 비평문을 잘 선택하는 것이다²⁾. 필자의 경우 한 텍스트에 대한 비평문을 보통 서너 개 다루었는데 각 비평문은 모두 비평적 방법이 다른 것을 선택하였다. 대학원생들한테는 앞으로 학위논문을 써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비평방법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텍스트에서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비평적 방법을 익히도록 비평문을 선택하는 것은 대학원생들에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비평문을 강의 시간에 충돌을 일으키게 하면 학생들이 텍스트와 비평문에 대해 몰입하지 않고 항상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겨난다. 굳이 비판적 페다고지의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³⁾ 이러한 다양한 비평적 충돌은 대학원 강의에서 학생들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관점을 기르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최근 비평적 방법은 신역사주의, 정신분석비평, 페미니즘, 포스트콜로리얼리즘, 문화연구 등 다양하다. 이러한 최근 비평방법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소 오래 되었더라도 신비평이나 전기적 비평방법, 그리고 휴머니즘 비평 방법을 사용하는 비평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다양한 비평문을 접해야 학생들이 균형적 시각에서 비평적 방법을 익힐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때때로 대학원에서 텍스트에 대해 여러 비평문을 설명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각 비평적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필자에게 중요한 정전에 대해 여러 가지 비평 이론에 따라 설명해 놓은 로이스 타이슨(Lois Tyson)의 『오늘의 비평이론』(*Critical Theory Today: A User-Friendly Guide*)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각각의 비평 이론에 대해 중요 개념을 설명해 놓고 그것이 미국의 정전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아서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비평적 방법을 설명

2) 한국에서 학생들에게 정전을 가르칠 때 또 하나 많은 교수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어떤 비평문을 사용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요즘은 나름대로 작품마다 정리된 비평문들이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비평문이나 비평 방향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한국영어영문학회 주도로 대학원과 학부에서 각 텍스트별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 비평문에 대해 정리해서 배포해주면 교수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기회에 영어영문학회에 그것을 해 보도록 제안한다.

3) 정정호 교수는 어문 교육에 있어 비평적 방법을 사용하여 어떻게 비판적 페다고지(pedagogy)로 발전시키는지 그의 논문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해 줄 때 큰 도움이 된다.

III. 강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문제점

여느 강의나 마찬가지로 대학원 미국 소설 강의의 경우 중요한 것은 강의 준비와 진행 방식이다. 강의 준비와 강의 내용 모든 것이 사전에 잘 준비되지 않으면 대학원 강의는 사실상 맥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껏해야 학부 때와 마찬가지로 해석위주의 강의를 한다든지,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듣고 나머지는 교수가 혼자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기 십상이다.

필자의 경우 학기 시작 첫째 주나 둘째 주에 한 학기 동안의 발표자들을 정해서 다룰 내용을 철저히 준비해 오게 하였다. 가령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경우 보통 매주 열장 정도 진도를 나갔다. 이런 경우 모든 학생들에게는 매주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읽으면서 토론 내용이나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오게 하였다. 그리고 발표를 맡은 학생들에게 미리 발표할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 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교수자가 미리 발표 내용을 숙지하고 토론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계획하기 좋다.

강의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강의 진행 방법이다. 필자의 경우 발표자가 중심이 되어 강의를 이끌고 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중요 쟁점에 대하여 발표자에 대해 반박하거나 다른 비평적 시각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면 강의가 대개 학생들 사이에 토론으로 발전되어 풍부한 내용이 논의되고 강의 만족도도 높았다. 그렇게 토론을 진행할 때 텍스트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역시 강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하다. 그것은 학생들 수준에 따라 조정하였다. 즉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텍스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학생들로 이루어진 강의의 경우 각 장별로 가장 중요한 한두 개의 단락을 발표자가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다. 지방대학의 대학원의 경우라면, 더욱 많은 단락에 대해 발표 준비를 하여 상세히 설명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중요 단락 자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만 토론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학생들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발표자가 단락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수자가 개입하여 그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대학원 미국 소설의 경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평문의 사용 방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필자는 장편소설 한 텍스트에 서로 간에 비평적 시각이 다른 비평문을 서너 개 정도 다루었다. 비평문을 읽힐 때에는 학생들이 비평문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나온 페미니즘, 신역사주의, 문화이론, 정신분석 이론 등에 기초한 비평문들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다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비평문을 읽기 전 교수가 비평문의 중요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그것들이 텍스트의 어떠한 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지 설명해주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비평문 자체를 강의시간에 구체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각 텍스트의 마지막 한 주 정도 남았을 때 진행하면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때쯤 되면 학생들도 텍스트를 다루면서 비평적 내용에 대해 상당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비평문에 관한 토론도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비평문을 토론할 때는 교수가 각 비평문 간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 주어야 학생들이 비평방법 간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된다.

최근의 문학 비평 흐름이 그렇듯이 어느 텍스트의 어떤 비평문을 선택해도 주제는 인종과 성, 그리고 계급의 문제로 모아진다. 그 이외에 중요한 주제는 청교도주의와 미국의 꿈 정도가 미국 소설 비평에서 항상 나오는 주제들이다. 따라서 비평문을 고를 때는 이상과 같은 문제가 골고루 다루어지도록 비평문을 선택하면 좋다. 필자가 『주홍글자』를 다루면서 사용한 비평문 네 개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Baym, Nina. "Revisiting Hawthorne's Feminism." Ed. Leland. S Person. *The Scarlet Letter and Other Writings*. New York: Norton, 2005.

Bercovitch, Sacvan. "The A—Politics of Ambiguity in *the Scarlet Letter*." Ed. Leland. S Person. *The Scarlet Letter and Other Writings*. New York: Norton. 2005.

Colacurcio, Michael. "Footsteps of Ann Hutchinson: The

Context of *The Scarlet Letter*" *The Scarlet Letter*. New York: Norton. 1988.

Gilmore, Michael. "Hawthorne and the Making of the Middle Class." Ed. Leland. S Person. *The Scarlet Letter and Other Writings*. New York: Norton. 2005.

이상의 비평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성과 계급의 문제, 그리고 정치학과 청교도 문제가 비평문들의 중요한 쟁점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텍스트에서는 인종 문제는 잘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생략하였다. 하지만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같은 교재에서는 인종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며 계급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처럼 각 텍스트별로 쟁점의 초점이 다르므로 교수자는 텍스트의 성격을 보고 중요 쟁점을 정한 후 거기에 맞게 비평문을 고르면 된다. 또한 그 초점되는 쟁점에 맞게 그 텍스트 전체의 발표와 토론을 이끌어 가면 된다.

물론 이러한 장편소설을 소화해내는 대학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영문학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원이나 지방대학 대학원의 경우에는 토론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없다. 이러한 지방대학 대학원의 경우 발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수자가 발표자에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 미리 힌트를 주고 그것을 발표하게 하고 그 발표문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어 읽으면서 내용을 따라가게 하면 된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활발히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중요한 문학적 흐름이나 쟁점에 대한 발표라면 교수자가 발표가 끝날 때 마다 중요 논점에 대해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 필자는 중요한 문학적 흐름이나 쟁점별로 중요한 논점에 대해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학생들에게 꼭 익히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면 미국 문학 전반의 흐름에 대해 쉽게 맥을 잡게 된다.

특히 교육대학원의 경우 미국 문학의 흐름이나 소설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정리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교육 대학원의 경우 영문학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 주는 것이 강의에 대한 호응도 좋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경우 피터 휴(Peter Hugh)의 『미국 문학 개요』(*An Outline of American Literature*)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그 책은 미국문학의 중요 쟁점에 대해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문학

사조와 쟁점에 대해 정리해 주는데 아주 유용하다. 교육 대학원이나 지방 대학의 대학원에서 미국 소설을 다룰 경우 앞에서 언급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문학 사조와 쟁점을 다루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머릿속으로 미국 문학 흐름에 대해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 미국소설 강의에 있어서도 영화는 아주 유용하다. 사실 학부 강의에만 영화가 사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학원 미국 소설 강의에서도 영화를 사용하여 중요한 쟁점에 대해 토론을 하면 학생들이 흥미롭고 쉽게 이해한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미국 정전 소설의 경우는 대부분이 영화로 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 영화로 나온 것도 많이 있다. 가령 『모히칸족의 최후』라는 지, 『허클베리 핀의 모험』, 『주홍글자』, 『위대한 개츠비』 등은 최근 영화로도 나와 있어 학생들과 토론하기 아주 좋다. 물론 영화를 보여줄 때는 원작을 상당 부분 읽고 중요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영화의 강렬한 인상으로 텍스트에 대해 정확한 비판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영화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교수자들의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는 영화를 사용할 때마다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심도 깊은 부분의 토론에 큰 도움을 받았다. 가령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논의할 때 소머즈(Sommers) 감독의 영화를 보면, 비록 이 영화가 디즈니사에서 나온 작품이기는 하지만, 작품의 핵심적인 부분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었다⁴⁾. 예를 들어 영화에서 짐의 재현은 원작에서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면 작품에 나타난 트웨인의 의도를 훨씬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원작에서 짐의 재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사실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짐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미신에 탐닉하는 등 “검둥이(darky)”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려 깊고 성숙한 인간으로 재현되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이러한 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영화에 나온 짐에 대해 함께 논의를 하면 학생들과 훨씬 흥미로운 논의를 할 수 있다. 영화에서는 당대 흑인 지배 담론에서 구축하고 있는 검둥이(darky)의 미신적이고 어리석은 흑인의

4) 필자는 학부 미국 소설 수업하는 데에도 이 작품을 사용하는 데 원작과 작품을 비교하여 간단한 보고서를 쓰게 한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원작의 이해에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 이 영화를 학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을 참조할 것.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친절하고 영리하고 상황 판단이 빠른 인간으로 나타난다. 가령 혁이 짐을 고발하려고 망설이는 장면에서도 원작에서는 짐이 혁에게 말하는 “가장 좋은 친구이자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74)라는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마음이 흔들리는 혁을 붙잡으려는 짐의 전략인지 애매하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짐이 흔들리는 혁의 마음을 눈치 채고 그 말을 하여 혁의 마음을 조정하는 모습으로 재현 된다⁵⁾. 학생들과 이러한 점을 논의하면 원작에 나오는 짐의 재현에 대해 훨씬 깊은 논의가 가능하다.

특히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것은 원작의 32장 이후 부분을 빼 버렸다는 것이다. 잘 알려지다시피 32장에서 마지막 43장까지는 “도피부”(The Evasion Section)라고 해서 지금까지 가장 큰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다. 비평가에 따라 이 부분을 실패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구성상 문제가 없으며 더 나아가 트웨인의 당대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이 잘 나타난 부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가령 리오 막스(Leo Marx)의 경우 이 부분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자유에 대한 추구”(quest for freedom)가 갑작스럽게 사라지고 “소극”(farce)이 되어 버린 부분으로 실패(337)라고 단정한다. 하지만 엘리엇(T. S. Eliot) 등은 이 부분이 톰(Tom)이 나오는 등 앞 뒤 “균형이 맞으므로”(334) 실패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이 부분을 평가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톰이 짐을 괴롭히는 부분을 단순히 소극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짐으로 대변되는 흑인을 가두어놓고 톰으로 대변되는 백인지배층이 괴롭히고 있는 당대 미국 사회에 대한 풍자로 볼 것인가 의 문제다⁶⁾. 영화에서는 이 부분을 완전히 생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학생들과 논의해 볼 수 있다. 트웨인의 진의가 당대 미국 사회에 대한 풍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독이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감독이 단순히 소극이었기 때문에 생략하였는가?

-
- 5) 이 영화의 감독인 소머즈는 짐의 모습을 흑인 인종 담론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짐이 흑인의 인권과 자유의 가치에 대해 혁에서 설득하는 부분까지 나오는 데에서 더욱 분명하다. 트웨인이 짐을 모습을 인종 담론으로부터 벗어나게 재현하였다는 주장은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의 논문을 참조할 것.
- 6) 성경준교수는 후반부 32장부터 짐이 감히는 부분은 당대 법률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감혀있는 흑인의 상황을 트웨인이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으로 파악하며 도피부가 사실 트웨인의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의 절정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성경준교수의 논문을 참조할 것.

이 영화의 감독이 짐의 재현이나 흑인담론의 시점에서 아주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생략한 진의는 무엇일까를 학생들과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원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훨씬 쉽고도 깊게 할 수 있다.

대학원 미국 소설 강의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등록 학생 수가 적어 학생별로 발표가 자주 돌아온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필자는 매주 발표자 한 명을 정하여 강의를 주도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서너 명이 등록한 강의의 경우 너무 순서가 자주 돌아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강의 등록 학생 수가 최소한 네 명 이상이 되어야 원활히 강의가 진행되었다. 그래야만 4주에 한번 정도 학생들에게 발표순서가 돌아오고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페이퍼는 중간 페이퍼로는 다섯 쪽 정도 쓰게 하고 이것을 발전시켜 기말 페이퍼는 일곱 쪽 정도 쓰게 하였다.⁷⁾

필자의 생각으로 대학원 강의를 마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마지막 주에 기말 페이퍼 발표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즉 논문 발표 콘퍼런스를 가져 축제 분위기로 다과와 음료수도 준비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기말 페이퍼를 발표하고 토론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기말 페이퍼를 그 때까지 준비하도록 돌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대부분 대학원 강의에 있어서 기말 페이퍼를 전체 강의가 끝난 한두 주 후에 내게 하는데 그때 되면 다른 강의도 기말 페이퍼를 내게 하여 학생들이 세 개 정도의 페이퍼의 부담을 갖는다. 더구나 많은 박사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이 학부에서 강의를 맡고 있고 있는데 그때가 성적 처리 기간이라 여간 바쁘지 않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대충 성의 없이 이것저것 짜집기하여 기말 페이퍼를 후다닥 써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원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논문쓰기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급하게 기말 페이퍼를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실 대학원 학생들이 학위 논문을 쓰기 전에 논문 쓰기에 대

7) 만일 가능하다면 중간 페이퍼를 영어로 쓰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자신의 의견과 논지를 영어로 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글쓰기 실력과 함께 영어 실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번 쓰고 나면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게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겠다.

해 배우는 가장 좋은 기회가 기말 페이퍼를 쓸 때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쓰게 한다면 나중에 학위 논문을 쓸 때 학생들이 큰 난관을 만난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따라서 기말 페이퍼를 어느 정도 강의가 끝나기 전에 완성하여 그것에 대해 강의 시간에 토론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학원 강의의 마지막 주를 기말 페이퍼 콘퍼런스로 구성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기말 페이퍼를 발표하고 서로 토론도 하면서 교수가 그것에 대해 코멘트를 한 후 제출된 최종 페이퍼를 보면 상당히 향상되어 있다. 더구나 마지막 주를 편안한 분위기의 콘퍼런스를 하면서 서로 다른 주제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에 공부한 것에 대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물론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발표 실력과 토론 실력도 상당 정도 향상된다. 이 콘퍼런스에 있어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교수가 사회자가 되어 시간 배분 등 진행을 잘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 시간은 20분 이내, 토론과 코멘트는 10분 이내로 해서 1인당 30분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면 적당한 것 같다.

대학원 강의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봄, 가을에 열리는 영미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학회에 학생들을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사실 강의 시간에 배우는 몇 권의 텍스트만을 가지고 학생들이 한 교수에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주제의 발표를 듣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영어영문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대학원생 세션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2008년 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에는 무려 백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발표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였는데 대학원 어느 수업보다도 이런 학술대회에 한번 참석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영어영문학회에서 앞으로 이러한 대학원생 세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부족한 대학원 강의를 보충하는 충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 소설 강의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대학원 강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학생들에게 흥미와 자신감을 주는 것이다. 일단 대학원에 온 학생들은 공

부에 흥미를 느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은 토론을 할 기회를 주어 흥미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학부 때 영문학 공부를 한 경우에도 대학원에 오면 갑자기 한 강의시간에 다루는 텍스트와 비평문 수가 많아지고 토론도 깊어져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 영문학에 대한 흥미도 잃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토론 시 학생들의 어떤 의견에도 경청하며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토론에서 교수로부터 면박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학생들의 자신감은 심각하게 상처를 받는다. 따라서 항상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런 가운데 학생들은 자신감을 굳건히 갖게 되고 그러한 자신감 속에서 학문적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한 학기 미국 소설 강의가 끝날 때 학생들이 미국 소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꼭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교수가 불어넣어준 학생들의 자신감과 성취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 대학원 석, 박사과정 학생들이 미래의 훌륭한 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면 대학원 학생에게 있어 가장 큰 자산은 학문적 기반과 함께 자신감과 성취감이 아닐까?

인 용 문 헌

- 성경준. 「마크 트웨인의 남부에 대한 태도와 모더니티의 문제」 『근대영미소설』 11.2 (2004): 5-27.
- 정정호. 「영미문학 교육과 비판적 페다고지-21세기 비판적 어문교육을 위한 시론」 『영미문학교육』 8.2 (2004): 247-82.
- 최정선. 「대학강단에서 트웨인 가르치기」. 『영어어문교육』 10.2 (2004): 159-76.
- 한국영어영문학회. 『2007년 한국영어영문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한국영어영문학회, 2007.
- . 『2008 Ellak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Re-visioning English Studies in Asia』. 서울: 한국영어영문학회, 2008.
-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Dir. Stephen Sommers. Walt Disney. 1995.
- Cooper, James Fenimore. *The Last of the Mohicans*. Harmondsworth: Penguin, 1986.
- Ellison, Ralph. *The Invisible Man*. New York: Random House Inc. 1995.
- Eliot, T. S. "An Introduction to *Huckleberry Finn*." Ed. Sculley Bradley, Richmond Croom Beatty, E. Hudson Long and Thomas Cooley.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New York: Norton, 1977.
- Fitzgerald, F. Scott. *The Great Gatsby*. Harmondsworth: Penguin, 1970.
- Hawthorne, Nathaniel. *The Scarlet Letter*. New York: Norton, 1988.
- Hugh, Peter. *An Outline of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Longman, 1986.
- Marx, Leo. "Mr. Eliot, Mr Trilling, and Huckleberry Finn." Ed. M. Thomas Inge. *Huck Finn among the Critics*. Frederick: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85.
- Twain, Mark.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New York: Norton, 1977.
- Tyson, Lois. *Critical Theory Today: A User-Friendly Guide*. New York: Garland, 1999.

Abstract

Teaching American Novel to Graduate Students: A
Case Study and Important Issues

Jungsun Choi

This essay aims to explore how teaching American novel to graduate students can be conducted effectively and discuss important issues related to this teaching. It ultimately tries to illustrate the methodology of teaching American novel in graduate school. For this purpose, I examine several texts and methodologies I have used in my American novel class. Especially this article tries to interrogate the directions of the class and several issues teachers might face while teaching American novel in graduate school.

This article emphasizes the careful selection of texts according to the level of graduate schools and presents the methodology in choosing the texts. I also investigate how professors prepare the class and lead th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presenting specific critical methodologies. In discussing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I also demonstrate how teachers can use films to advance the level of class discussion. This article ultimately trie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methodology of teaching American novel in graduate schools to encourage graduate students to become good scholars.

Key words : American Novel, Teaching, Graduate Students, Film,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미국소설, 가르치기, 대학원, 영화, 허클베리 핀의 모험

논문접수일: 2008. 11. 27

심사완료일: 2008. 12. 10

게재확정일: 2008. 12. 15

이름: 최 정 선

소속: 한경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주소: (456-749)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167(석정동) 한경대학교 영어학과

전화: 031-670-5315

이메일: jsch12@paran.com